



다카다 성 백만인 벚꽃 축제

매년 4월 초순부터 약 2주간 개최

조에쓰 시의 다카다 공원과 그 주변은 매년 4 월경부터 약 4,000그루의 벚꽃이 피는 벚꽃의 명소이다. 지역 시민과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다. 공원의 상징「다카다 성 삼중망루」와 벚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오직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다. 밤이 되면 벚꽃이 등롱에 비쳐 완전히 다른 경치가 된다. 수로의 수면에 벚꽃과 성이 투영되어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. 공원 내에는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매점이나 포장마차도 있어, 벚꽃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식사도 즐길 수 있다.

벚꽃놀이의 역사

다카다 공원에는 한때 다카다 성이 있었지만,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폐성되었다. 그 후, 1909년에 다카다 성터에 일본육군이 입성했을 때, 2,200그루의 벚나무를 심은 것이 시초. 벚꽃은 1914 년경에서부터 만개하기 시작했고, 1917 년부터 시민도 원내에서 꽃 구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. 이후 다카다 공원의 아름다운 벚꽃은 일본 전역에 빠르게 알려진다.

1993년에는 「다카다성 삼중성루」가 복원되어 벚꽃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. 다카다 공원의 벚꽃은 지금까지 100년 이상에 걸쳐 꽃놀이 방문객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.